



일본의 새소식

在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公報文化院

☎ 03131 서울특별시 중로구 율곡로 64 Tel 02. 765. 3011~3

11

2018 | Vol. 559

성찰(省察)
Photo : PARK SIMON_교토_제4회 한일포토콘테스트 In-Painter Global상

나가미데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 참석

지난 10월 1일(월), 나가미데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가 서울특별시청 본관 다목적홀에서 열린 '오부치-김대중 공동선언 20주년과 동아시아 미래비전'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축사했다.



조현 외교부 제1차관,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최상용 전 주일한국대사, 김용학 연세대학교 총장, 염재호 고려대학교 총장, 박명림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장, 참석자 여러분, '오부치-김대중 공동선언 20주년과 동아시아 미래비전 국제학

술회의' 개최에 즈음하여 일본 정부를 대표해서 축사를 전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당시의 오부치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은 '일한 공동선언'을 시작으로 과거의 양국관계를 총괄하고 일한 우호 협력관계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확고한 결의와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일한 간에 이어져 온 교류 증진의 노력은 이 선언으로 크게 힘을 얻었고 일한 교류는 이후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른바 일본 대중문화개방이 진행되었고, 일본에서는 유례없는 한류 붐이 일어나면서 상대국 문화에 관한 관심을 국민 차원에서 보여주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지금은 양국 간 왕래가 1000만 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불과 1만 명대 왕래밖에 없었던 국교 정상화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대한 인적 왕래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한 공동선언' 이후의 일한 관계를 체험하고, 풍

부한 상호 교류 속에서 자란 양국의 새로운 세대 사람들이 양국의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국 사회와 양국 관계를 담당해 나아가는 것은 서로의 사회나 문화에 선입견 없이 관심을 두고 직접 접해온 세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는 시대는 국민 간의 강고한 신뢰 관계라는 토대 위에서 일한 양국이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과 국제사회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가는 시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니셔티브로 지난 1년 남짓한 기간에 큰 변화를 가져온 북한 정세에 대한 대응은 물론, 지역 사회의 안정과 경제적 번영에 대한 기여 등 역내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과 일본이 공통 목적을 향해 협력해나가는 것의 필요성을 많은 분이 강조하셨고, 저 자신도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1998년이라는 해에 21세기를 내다보면서 널리 세계에 호소한 '일한 공동선언'에 입각하는 행동 원칙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을 맞이하여 '일한 공동성명'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일한 신세대 젊은이들과 함께, 차기 20년의 비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오늘 학술회의가 큰 성과를 거두어 앞으로의 일한 교류를 더욱 발전시켜 가는데 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양국의 우호 협력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기를 바라며, 나아가 오늘 참석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제 축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일한 문화 · 인적 교류 추진을 위한 전문가 회의

10월 3일, 제4회 일한 문화 · 인적 교류 추진을 위한 전문가 회의가 고노 타로(河野太郎) 외무대신의 참석 하에 일본 외무성에서 개최되었다.

고노 외무대신의 인사 후, 전문가 일동이 고노 외무대신에게 일한의 문화 · 인적 교류에 관한 제언을 제출했으며, 곤도 의장이 제언의 개요에 관해 설명했다.

고노 외무대신은 제언을 받으면서 단기간에 온 힘을 다하여 제언을 정리한 전문가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일본 측 전문가와 한국 측 '한일 문화 · 인적 교류 활성화 태스크포스' 일원들과의 의견 교환을 10월 하순을 목표로 서울에서 개최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고노 외무대신과 전문가들 간에 일한 문화 · 인적 교류에 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Photo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제4회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곤도 세이치(近藤誠一)(의장)

곤도 문화 · 외교연구소 대표, 전 문화청 장관

구로다 후쿠미(黒田福美) 배우

오구라 기조(小倉紀蔵) 교토대학 교수

고하리 스스무(小針進) 시즈오카 현립대학 교수

사와다 가쓰미(澤田克己) 마이니치신문 외신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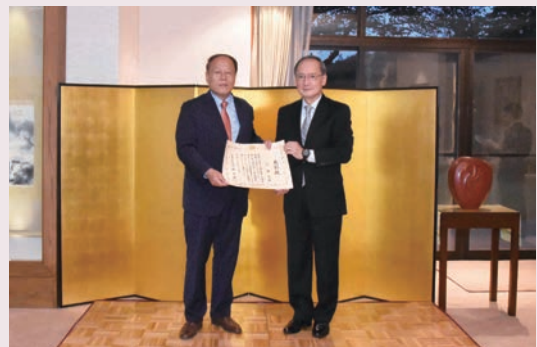
니시노 준야(西野純也) 게이오대학 교수

2018년도 외무대신 표창 전달식

2018년 외무대신 표창 전달식이 주한일본대사관저에서 거행되어 9월 14일에는 윤덕민 한국외국어대학 석좌교수, 9월 20일에는 심규선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에게 각각 표창이 전달되었다.



윤덕민 교수는 오랫동안 일본 연구를 추진하며 일본과 대한민국과의 상호 이해 촉진과 우호 친선에 기여한 공로로 2018년 외무대신 표창을 수상했다.



심규선 교수는 오랫동안 일한 관계에 관한 기사 및 칼럼을 집필하여 일본과 대한민국과의 상호 이해 촉진과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18년 외무대신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과 일본의 문화교류를 말하다 조선통신사 기록물 세계유산등재 1주년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대규모 외교사절단이었던 조선통신사 관련 사업은 물론, 조선통신사 기록물을 세계유산으로 공동 등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문화재단 조정윤 문화유산팀장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그 의미와 1주년 기념사업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조선통신사는 ‘성신 교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문화교류의 과거와 미래를 재평가할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인데, 조선통신사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조선통신사는 임진란(1592년) 이후, 양국 간 국교 회복을 위한 일본의 요청으로 파견되었던 공식 외교사절로서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약 200년간 12차례 파견되었으며, 국서를 전달하는 정사를 비롯하여 문장, 천문, 지리, 산수, 의술, 음악, 미술 등 조선 최고의 예능인으로 구성된 300명~500명의 대규모 외교사절단이었습니다. 조선통신사는 단절된 양국의 외교 관계를 회복하고 대등한 교류를 통해 상호인식의 폭을 넓힘으로써 한국과 일본은 물론 동아시아의 평화 구축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조선통신사는 양국이 대립과 갈등을 넘어 평화 구축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세계에서 그 유례가 드문 인류가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각 지역에 조선통신사 관련 축제와 시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부산문화재단의 ‘조선통신사 한일문화교류사업’은 조선통신사 축제, 한일네트워크 사업, 조선통신사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기념사업, 학술사업, 홍보·교육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선통신사 축제는 매년 5월 첫째 주말을 기점으로 부산 용두산 공원과 광복로 일대에서 개최하는 역사 문화 축제입니다. 조선통신사 행렬재현, 문화교류 공연, 학술심포지엄, 체험 및 전시 홍보 행사로 구성되며, 매년 일본 각 지역에서 약 200~300명의 예술단과 관계자가 공식 참가하는 양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조선통신사 관련 행사입니다.

‘한일네트워크 사업’은 쓰시마 행사, 시모노세키 행사, 시즈오카 행사,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으로 나뉘어 집니다. **쓰시마 행사**는 매년 8월 첫째 주말, 쓰시마시 이즈하라항 축제 기간에 정사, 부사를 포함한 취타대, 무용단, 사물놀이 등 예술단을 파견하여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및 국서 교환식, 문화교류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시모노세키 행사**는 매년 8월 셋째 주말, 시모노세키시 바칸축제 기간에 정사를 비롯한 취타대, 무용단, 사물놀이 등의 예술단과 부산시민 등 130명 규모의 방문단을 구성하여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및 국서 교환식, 문화교류 공연, 조선통신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즈오카 행사**는 2015년 도쿠가와 이에야스 현장 400주년 기념 사업으로 시즈오카에서 조선통신사 관련 사업을 재단과



함께 추진한 이래, 지속 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월 셋째 주말에 무용단, 사물놀이 등 예술단을 파견하여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문화교류 공연, 조선통신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조선통신사를 공동 등재하게 된 과정과 양국의 민간단체는 어떤 역할을 했나요.

2012년 5월, 부산의 조선통신사 축제 기간 중 일본의 조선통신사 연고도시 전국교류대회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부산문화재단은 축제 만찬회에서 조선통신사를 유





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양국 공동 등재를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일본의 조선통신사 연지연락협의회가 화답하면서 유네스코 공동 등재를 위한 여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쓰시마 지역이 중심이 되어 'NPO법인 조선통신사연지연락협의회'라는 비영리 단체가 1995년 발족하여 다양한 조선통신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 등재를 위한 학술회의도 양국을 오가며 12회에 걸쳐 진행했고 한국과 일본에 산재한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 중 세계기록유산 등재 원칙에 맞는 자료를 정하기 위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외교 기록' '여정 기록' '문화교류 기록' 3가지 관점으로 등재목록을 구성하여 111건 333점으로 최종 등재를 신청했습니다. 2016년 3월 30일 유네스코 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제자문위원회의(IAC)를 거쳐 2017년 10월 31일(파리현지시간 10월 30일)에 등재가 확정되었습니다.

한국의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과 일본의 NPO법인 조선통신사연지연락협의회가 공동으로 조선통신사 관련 기

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신청한 것은 조선통신사를 매개로 오랜 기간 조선통신사 현장 및 학술연구 등의 활동으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왔기에 가능했습니다. 양국 민간단체에 의한 기록물 공동등재 추진은 한국과 일본의 합의에 의한 문화유산의 공유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유산등재 1주년 기념행사를 소개해 주세요.

부산문화재단은 부산시립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박물관과 공동으로 조선통신사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주년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부산시립박물관은 10월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 부산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UNESCO 세계기록유산, 통신사 기록물'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본국 중요문화재, 조선국왕국서, 별폭, 아마노모리호슈 초상 등 18점을 포함한 일본과 한국 소재 UNESCO 세계기록유산 등재 통신사 기록물 81건, 115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10월 25일에는 한국의 12개 도시와 일본의 9개 도시 관계

자가 참석한 가운데, 조선통신사의 여정을 기록한 도록과 백서 출판기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10월 26일에는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조선통신사 정사 기선을 복원한 '조선통신사선 진수식'이 열렸습니다.

조선통신사선을 건조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2015년부터 조선통신사선 복원사업을 시작하여, 국내 최초 실물 크기로 조선시대 선박 제작에 쓰인 건조방법과 전문가 고증을 거쳐 당시의 선박과 최대한 가깝게 재현했습니다. 목포에 위치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150년 이상된 금강송 약 900본을 사용하여 $34 \times 9.3 \times 3.0\text{m}$ 규모의 배로 제작해서 10월 26일 진수식을 가졌습니다. 조선통신사선은 부산에서 개최되는 조선통신사 축제와 해양문화 행사에 참여하게 되며, 전통 항해 방법으로 옛 뱃길을 재현할 계획입니다. 복원된 선박은 부산문화재단과 함께 조선통신사 축제 등 각종 해양문화행사에서 항해 재현과 승선 체험 학습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또, 움직이는 조선통신사 선상박물관으로 운영도 가능해 집니다.

조선통신사와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에서 앙케이트 조사도 진행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부산문화재단은 조선통신사 세계기록유산 등재 1주년 기념으로 양국 시민을 대상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 등재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사실 인지도, 유네스코 공동등재 인지도, 공동등재가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양국 시민의 인식

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5월~9월까지 조선통신사 행사 일정에 맞춰 5차례 설문조사, 한국인 응답자 846명, 일본인 응답자 340명으로 총 1,186명 대상).

-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사실 인지 경로는 한국의 경우, 유네스코 등재 뉴스와 역사 교육을 통해 인지했으며, 일본의 경우는 교양 서적을 통한 인지와 등재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양국 모두 작년(2017.10.31.)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 등재가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가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에 미친 영향에 대해 한국 83.1%, 일본 90.9%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양국 모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민의 자긍심 고양, 지역 이미지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조선통신사를 통한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당면과제로 한국의 경우는 민간 차원 교류(43%)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본의 경우는 국가차원의 관심과 지원(75.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유네스코 공동등재 사실을 인지하는 양국의 응답자들은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조선통신사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新조선통신사’라는 의미 부여를 통해 미래 세대와 양국 시민이 함께하는 양국 문화교류 플랫폼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올 5월 부산에서 개최된 2018 조선통신사 축제 기간 중 어린이가 축제의 주역이었는데, 이는 양국의 ‘어린이 조선통신사’ 양성을 위한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新조선통신사’는 조선통신사의 주요 역사문화 자원을 현대적으로 복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부산문화재단은 일본의 연고도시와 협력하여 도쿄 2020 올림픽에서 조선통신사 행렬재현을 통해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발신할 예정입니다. 또 양국의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 공동으로 조선통신사 문화 콘텐츠(만화 제작 등)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新조선통신사 활동은 21세기 양국 문화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열수 있을 것이며, 문화교류를 통한 평화 구축에 기여하리라 봅니다.



과일 왕국 와카야마현 기노카와시와 제주도 서귀포시의 자매도시 교류



도원향

와카야마현 북부에 있는 기노카와시(紀の川市)는 인구가 약 6만 3천 명에 면적은 약 228.21km²인 한가로운 시골 마을이다. 북으로는 이즈미 산맥(和泉山脈), 남으로는 기이 산지(紀伊山地)가 솟아 있고, 시 중심에 일급 하천인 기노강이 흐르고 있다. 풍요로운 대지와 따뜻한 기온 덕분에 다양한 종류의 농산물이 재배되고 있다. 기노카와시 면적의 약 15%가 과수원이며 특히 복숭아나 감, 키위, 귤의 일종인 핫사쿠, 무화과 등 과일 생산량과 품질은 일본에서도 최상위로 연중 맛있는 과일이 많이 나는 과일 왕국이다.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35분으로 접근성도 좋다.



메케몽 광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자매도시 교류

거리가 감귤 색으로 물든다. 기노카와시와 서귀포시에서 가을 끝자락이면 볼 수 있는 풍경이다. 1965년대에 지금의 서귀포시로 ‘굴 묘목’을 보낸 것이 계기가 되어 교류가 시작되었다. 이후 시정촌(市町村, 일본의 기초 자치 단체) 합병으로 기노카와시와 서귀포시의 탄생을 거쳐, 2007년 2월 9일 와카야마현 기노카와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가 오랜 우호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더불어 발전하기 위해 자매도시결연을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방문단 파견과 수용, 청소년 교류, 직원 상호 파견 등을 시작했다.

2015년부터 11월에 서귀포시에서 개최되는 ‘제주국제감귤 박람회’에 기노카와시의 과일 가공품을 출품하여 시의 매력을 알리고 있다. 청소년 교류로는 매년 두 시의 중학생이 상호 방문하여 홈스테이와 학교 방문을 통해 서로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하고 있다. ‘나라는 달라도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기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고 알아주길 바란다’라며 참가한 중학생들은 이를 몸소 체험하고 있다. 기노카와시의 ‘국제 교류의 싹’은 착실하게 자라고 있다.

나아가 올 7월에는 서귀포시 방문단이 기노카와시를 방문하여 기슈 3대 축제(紀州三大祭)인 기노카와 마쓰리(粉河祭)에 참가하여 시의 관광자원을 체험하고 있다. 귀국 후 방문단은 기노카와시의 정보를 서귀포 시민에게 TV나 SNS를 통해 알리고 있다.

이처럼 두 도시는 활발한 교류를 지속하고 있으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푸루푸루 박람회

과일 왕국 기노카와시

기노카와시는 연중 과일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봄에는 딸기다. 딸기 따기 체험으로 새콤달콤한 딸기를 맛볼 수 있다. 또 이 시기가 되면 복숭아꽃이 만개한다. 히토메 주만본(ひとめ10万本)이라는 복숭아밭은 도원향(桃源郷)이라 불리며, 주변 일대가 마치 분홍빛 용단을 깔아놓은 듯한 광경을 볼 수 있다. 여름이 되면 복숭아가 전성기를 맞는다. 모모야마정(桃山町)이라는 지명이 있을 정도로 예로부터 복숭아가 재배되고 있다. 달달한 '아라카와노 모모(あら川の桃)'는 기노카와시 초여름의 상징이다. 가을은 감이다. 나무에 달린 채로 뚝뚝 따서 완숙시킨 '기노카와 감'은 과육이 검어 '구로아마가키(黒あま柿)'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고급 과일로서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 겨울이 되면 귤, 데코풍(한라봉, 기요미와 폰칸의 교배종), 기요미(清見, 귤과 스위트오렌지의 교배종), 핫사쿠(八朔, 자몽과 만다린) 등의 감귤류와 키위를 즐길 수 있다. 이처럼 연중 수확 가능한 과일의 매력을 많은 이에게 전하기 위해 기노카

와 주민들은 힘을 쏟고 있다.

2년 전부터 과일을 일대 관광자원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기노카와 과일 체험 푸루푸루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약 1개월 동안 시내 전역에서 시민들이 기획한 행사가 열리며, 일본식 과일 과자 만들기와 과일 다도회, 과일 수확 작업 체험, 과일 가루타(일본식 카드놀이) 대회, 과일 피리 만들기, 과일 축제 등 실로 과일로 놀고, 배우고, 이어지게 된다.

시내에는 갓 딴 과일을 사용한 '과일 구루메'도 많다. 복숭아 농가가 만든 '복숭아 한 개가 통째로 들어간 파르페', 농가 카페가 만든 '계절 과일 버거' '과일 파스타', 현지에서 인기 있는 초밥집에서 만드는 '과일 초밥' 등 다양한 형태로 과일을 즐길 수 있다.

이렇게 기노카와시를 장식하는 과일을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서일본에서 매상 NO.1의 파마즈 마켓 '메케몽 광장'이다. 농부들이 과일이나 채소를 매장에 진열하여 신선한 맛을 전하고 있다.



과일 초밥

맺음말

기노카와시에는 패션의 위기를 구한 고양이 역장 '다마'가 있던 와카야마전철 기시가와선 기시역(貴志駅)이 있다. 현재는 고양이 슈퍼 역장 '니타마'가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또 지형이 좋은 기노카와 하천 부지는 패러글라이더 등 스카이스포츠의 메카로서도 사랑 받고 있다. 언제와도 과일이 풍성한 기노카와시에서 그 맛을 즐겨보기 바란다.

(집필: 기노카와시, 협력: CLAIR, Seoul)

일한관계
미야기올레 개장

길에서 치유하고 담고 일어나라 미야기올레 개장

미야기현(宮城県)은 일본 동북지방의 관문으로 온화한 기후와 풍부한 자연의 혜택을 입은 곳으로 사계절 내내 자연의 수려함을 즐길 수 있으며, 현재까지 살아 숨 쉬는 전통문화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로 미야기현은 큰 상처를 입었지만, 자연이 스스로 치유해가는 과정을 경험한 미야기현 사람들은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자연'이라는 보물을 세상에, 미래에 전하고 싶은 마음에 사단법인 제주올레의 문을 두드렸다. 그 후 1년 이상에 걸친 고민과 노력이 담긴 제주올레 세 번째 해외 자매의 길 '미야기올레'가 열렸다.



10월 7, 8일 규슈에 이은 일본 2호

역사와 문화, 바다를 품은 '미야기올레' 개장

올레는 제주어로 '큰길에서 집으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길'을 의미한다. 제주올레는 한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로 걷기 문화를 확장해가는 커다란 흐름이다. 제주도에서 시작된 도보여행길 '올레'가 규슈, 몽골에 이어 미야기현에도 열렸다. 미야기올레는 일본 동북지방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일본 3대 어장으로 손꼽히는 풍성한 바다에서 나는 다양한 먹거리를 놀멍 쉬멍 먹을멍 걸으멍 즐기는 아름다운 도보 여행 길이다.

미야기올레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줄어든 외국인 여행객과 상처받은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올레길을 내고 싶다는 미야기현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미야기현은 도쿄에서 약 300km 거리에 있는 동북 지방의 관문인 센다이시(仙台市)가 속한 현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제주올레가 지닌 치유의 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등에 주목했다. 미야기현과 제주올레는 2016년 4월 제주에서 첫 논의를 시작한 이후, 여러 차례 만나 미야기올레의 가

능성을 타진해 왔다. 지난 2017년 12월 제주올레는 미야기현, 게센누마시(氣仙沼市), 히가시마쓰시마시(東松島市), 오사키시(大崎市)와 미야기올레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코스 개발과 답사를 시작한 결과, 우선 2개 코스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펼쳐지는 바다의 매력에 풍덩 ‘게센누마·가라쿠와 코스’

미야기올레는 태평양을 바라보며 걷는 웅장한 해안 길과 푸르른 숲길, 지역주민과 직접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마을 길로 다채롭게 구성되어 제주올레와 규슈올레와 닮았으면서도 또 다른 매력을 갖고 있다. 제주올레나 규슈올레가 아기자기한 여성적 매력을 가졌다면, 미야기올레는 씩씩하고 장엄한 남성미로 가슴을 파고드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기암절벽을 때리는 거대한 파도에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를 들으며 걷게 될 게센누마·가라쿠와 코스에서는 박력 넘치는 화려하고 거대한 바다를 만날 수 있다. 변화무쌍한 리아스식 해안의 압도적인 절경과 산리쿠 지오 파크를 지나며 사철마다 피는 야생화까지 볼거리가 가득한 길이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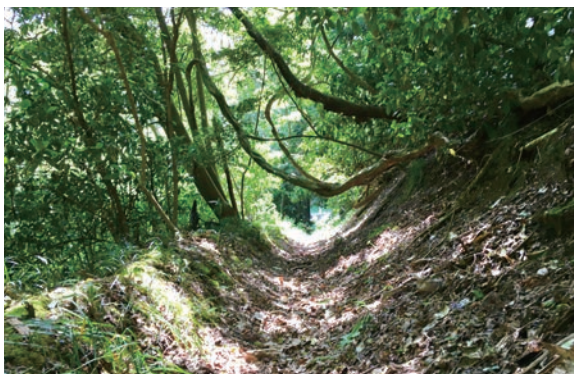
코스는 미야기현 게센누마시 가라쿠와 반도 끝에 위치한 가라쿠와반도 비지터센터에서 출발해 산리쿠부흥국립공원의 대표적인 경승지 오레이시, 한조까지 이어진다. 시작점을 출발해 해안선을 따라 가면 2011년 쓰나미로 바다에서 육지로 옮겨진 150t 규모의 암반인 쓰나미이시를 만날 수 있다. 이 지역에서는 쓰나미가 평균 37년에 한 번꼴로 반복된다. 반복되는 자연의 섭리에 익숙한 이곳 사람들은 자연재해에 대비한 교육과 경고 시스템을 잘 갖추어 놓고 있



지난 10월 7일, 가라쿠와반도 비지터센터에서 한국에서 온 올레꾼 약 150명과 일본 각 지역과 아시아트레일즈에서 참가한 올레꾼 등 약 500명이 모여 미야기올레 개장을 축하했다.

다. 지역민 대다수가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만큼 그 바다로 인해 아픔을 겪어도 자연을 거스르며 살 수 없다는 정서를 가지고 있다. 이 코스를 걷다 보면 자연을 경외하며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기도가 키워준 독특한 문화 그리고 서로를 돕는 마음에 흠뻑 빠져들게 된다. 가라쿠와정에는 70곳의 크고 작은 수호신을 모시는 신사가 있는데, 예로부터 이곳 사람들은 몇 개의 신사를 돌며 풍어와 안전을 비는 오산케(お参詣) 문화가 있다. 옛날 이 지역 사람들이 걸었던 작은 신사로 가는 참배 길과 생활로를 올레 길로 이었다.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간 남편을 둔 아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찾던 작은 신사로 이어진 참배길,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 잊혔던 길을 마을 사람들의 열정으로 올레길로 되살려낸 구간, 최고의 절경을 자랑하는 오사키 곶과 숲길을 지나 만나는 마을 길까지 바다와 함께 살아온 가라쿠와 사람들의 삶과 문화에 젖어 들기에 충분한 코스다.



일본 삼경 마쓰시마 해안으로 빛나는 ‘오쿠마쓰시마 코스’ 개장

두 번째 코스는 일본이 사랑하는 3경, 마쓰시마의 속살을 즐길 수 있는 오쿠마쓰시마 코스로 거대한 호수로 착각할 만큼 잔잔한 바다 위에 점점이 떠 있는 섬들이 이뤄내는 풍광은 한 폭의 동양화다. 소나무로 덮인 이 섬 군락에 감탄한 일본 유학자 하야시 가호(林鷺峰)가 교토현 아마노하시다테, 히로시마현 이쓰쿠시마와 함께 이 마쓰시마를 일본 3대 절경지로 꼽으면서 약 400년 동안 일본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미야기올레 개장에 맞춰 새로 조성한 커뮤니티센터인 아오미나에서 출발한 길은 오지 섬들의 절경지를 들으며 시작점이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원형 코스다. 코스 초반은 조몬시대(일본 신석기시대 중 기원전 1만 4,000년~기원전 300년까지) 역사를 찾아가는 길이다. 조몬시대 마을터에서 이어지는 사토하마 조몬 역사공원에서는 일본 최대급 패총을 만난다.

조몬시대의 패총이 원형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은 자연재해가 몰려와도 이 지역만큼은 안전했다는 것을 입증한다. 동일본대지진 때도 이 해안가는 인명피해가 거의 없었다. 20분만 걸으면 정상에 도달할 수 있는 105m의 작은 산 ‘오타카모리’ 정상은 이 코스의 백미다. 탁 트인 태평양과 자오연봉, 마쓰시마만, 오시카반도를 360도 파노라마로 조망하다 보면, 이곳이 왜 일본 삼경이 되었는지 동의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소박한 섬마을을 들고 나면서 만나는 다양한 식생과 풍성한 자연이 내어주는 산해진미 그리고 지역민들의 순수한 환대는 덤이다.



우리는 올레가 지닌 치유의 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에 주목한다.

제주올레의 글로벌 프로젝트 ‘자매의 길’은 해외에 올레 브랜드를 확장해 만드는 도보여행 길로, (사)제주올레가 코스 개발 및 자문, 길표지 디자인을 제공하는 한편 운영 방침과 철학까지 공유해 ‘올레’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첫 자매의 길은 현재 일본 규슈에 21개 코스가 운영되고 있는 ‘규슈올레’로, 2012년 2월 개장 이후 총 33만 명의 여행자가 규슈올레 길을 걸었다. 지난해 6월 문을 연 ‘몽골올레’는 2개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올레에 이어 몽골올레를 걷고 미야기올레 개장식에 참여한 한국인 올레꾼은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이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주민들의 공연이 인상적이었고, 그들의 얼굴에서 얼마나 미야기올레를 기대하고, 개장을 준비해왔는지 느낄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사단법인 제주올레 서명숙 이사장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모색하는 모든 올레길이 그렇지만, 동일본대지진을 겪고 극복해가고 있는 미야기올레야말로 치유와 상생의 정신에 잘 부합하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집필: (사)제주올레, 협력: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여유로움과 힐링의 우레시노

난도료의 백년 벚꽃

우레시노시(嬉野市)는 규슈지방 사가현(佐賀県) 남서부에 위치하며, 면적이 약 126km²이고 인구가 약 2만 6천 명인 작고 한적한 곳으로 사계절 내내 자연의 풍경을 즐길 수 있다. 우레시노시는 사가 공항에서는 리무진 택시로 약 1시간, 후쿠오카 공항에서는 고속버스로 약 1시간 30분이면 도착한다. 또 나가사키 공항에서는 자동차로 40분 거리에 위치하며 한 국내에서 접근성도 좋아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최적의 장소다.



온센유도후

우레시노 온천과 온센유도후

우레시노시에는 1,3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레시노 온천’이 있다. 그 옛날 진구 황후(神功皇后)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들렸는데, 강변에 지친 몸을 담그고 있던 백학이 힘차게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고 부상병들에게 들어가게 했더니, 그곳에 온천이 솟아나고 있어 순식간에 상처가 아물었다고 한다. 이를 매우 기뻐한 황후가 ‘아나 우레시이노(너무 기쁘다)’라고 외친 것에서 지명이 유래했다고 한다. 우레시노 온천은 예로부터 피부에 좋아 미인 온천으로 불리고 있으며, 미끈미끈한 온천수는 탄산나트륨이 함유되어 각질화된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고 윤기 나는 피부로 되돌려준다.

우레시노 온천수에 두부를 넣고 끓인 ‘온센유도후’는 온천의 절묘한 성분 밸런스가 두부의 단백질을 녹여낸 부드러운 식감의 일품 요리다. 뽀얀 색의 녹는 듯한 유도후는 우레시노 온천에서만 먹을 수 있다.

특산품

우레시노시의 대표적인 특산품은 우레시노 차(うれしの茶)



우레시노 온천

와 히젠요시다야키(肥前吉田焼)다. 산안개가 짙게 내려앉은 분지인 우레시노시는 일본에서 손꼽히는 차의 명산지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에서 자란 우레시노의 찻잎은 독특한 제조법으로 짙은 녹색의 동그스름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뜨거운 물을 부으면 찻주전자 속에서 천천히 열리면서 감칠맛을 내기 때문에 물을 부을 때마다 맛과 향,



히젠요시다야키

감칠맛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히젠요시다야키는 우레시노정 요시다 지구(嬉野町吉田地区)에서 약 400년 전 도기를 빚는 흙이 발견되면서 탄생했다고 한다. 히젠요시다야키는 찻사발과 찻잔, 찻주전자, 종지 등 서민의 도자기로서 친근하게 퍼져 나갔다. 현재 요시다 지구에는 7개 가마가 있으며, 각각 개성 넘치는 작품을 만들고 있다.



우레시노 코스

규슈올레 우레시노 코스

제주도에서 시작된 도보 여행 길 ‘올레’는 규슈에도 ‘규슈올레’로서 21개 코스가 있으며 우레시노시에도 있다. 우레시노의 올레 코스는 히젠요시다야키의 가마가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요시다 지구, 초여름에는 새순이 눈부신 우레시노 차밭, 맑은 공기와 나무 향기를 물씬 풍기는 22세기 아시아의 숲과 산 등 풍요로운 자연의 경치를 즐길 수 있다.

코스 종반에 있는 높이 11m의 3단 폭포 도도로키노타키(轟の滝)와 도보로 지친 다리를 쉬게 해주는 ‘시볼트 족탕’ 등의 관광지도 우레시노 코스의 볼거리다. 도중에는 ‘간세’라 불리는 말 모양 안내판과 빨간색과 파란색 리본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처음이라도 안심하고 걸을 수 있다.

축제

우레시노시에서는 매년 2월 상순 ‘우레시노 앳타카마쓰리’가 개최되어 우레시노 중심 시가지의 중앙 상가에 높이 2m의 백구백등불등롱(百句百灯華灯笼) 100개가 나란히 세워진다. 그 외에 다양한 수작업으로 만든 등롱과 등



우레시노 앳타카마쓰리

불 조형물이 은은한 빛을 더해준다. 또 랜턴 공간 작품 ‘요이노 미술관 나마즈노 네도코(宵の美術館 なまずの寝床)’에서는 우레시노에서 피부의 신으로 모셔지는 시로나마즈(白なまず)와 강가에 사는 생물의 세계를 시민들이 몇 달에 걸쳐 등불로 만들어 공간 가득 표현하고 있다.

일시 : 2019년 1월 26일(토)~2월 11일(월)

3월 하순에는 요레시노 시내의 세토 주조(瀬頭酒造), 고초다 주조(五町田酒造), 이데 주조(井手酒造) 등 3개 양조장이 합동으로 사케 시음과 비교, 특산품 판매와 양조장 구분 없이 오리지널 3종 세트를 판매하는 ‘우레시노 온천 사카쿠라마쓰리’가 개최된다. 이 기간에는 우레시노시에 인접한 가시마시와 연계하여 동시에 개최되는 가시마 사카쿠라 투어리즘®과 우레시노 온천 사카쿠라마쓰리를 잇는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일시 : 2019년 3월 23일(토)~24일(일)

맺음말

우레시노시를 찾은 분들은 모두가 ‘왓지 마음이 놓인다.’ ‘한가로운 분위기에 치유된다.’고 한다. 우레시노시에서 지친 몸을 달래주는 우레시노 온천과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우레시노 온센유도후, 우레시노 차, 선물에 좋은 히젠요시다야키, 일본의 옛날 그대로의 농촌풍경을 느낄 수 있는 규슈올레 우레시노 코스 그리고 여행을 더욱더 즐겁게 해주는 우레시노 앳타카마쓰리와 우레시노 온천 사카쿠라마쓰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도심의 소음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러 우레시노시를 방문해 주세요.

(집필: 우레시노시, 협력: CLAIR, Seoul)

IZ*ONE이 이어준 미래 IZ*ONEが繋げた未来

송예훈(최우수상)

지난 10월 13일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제14회 한일 교류 말하기 대회'가 개최되었다. 한국어와 일본어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이나 느낀 점을 상대국의 언어로 발표하는 대회로 올해는 일본어 발표자인 송예훈 학생이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그 내용을 소개한다.

말해줘, pick me up!

여러분은 '프로듀스 48'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고 계신가요? 국민이 집적 아이돌 데뷔 멤버를 선발하는 한국과 일본 시스템이 결합한 콜라보 방송입니다. 처음에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일본 아이들이 고생했지만, 한국 연습생과의 합숙과 연습을 통해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며 친구가 되었고, 국민 프로듀서의 선거로 IZ*ONE으로 데뷔했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보고 처음에는 말도 통하지 않던 한국 연습생과 일본 아이들이 서로의 언어를 배우거나 알려주고, 서로를 위해 눈물을 흘리거나 웃으며 우정이 싹트는 모습을 보고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서 감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본어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을 때, 인터넷에서 사귀는 일본 친구들이 이 방송처럼 틀린 한자를 고쳐주고, 어려운 발음을 다시 말해주면서, 밤늦게까지 통화해주는 등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제 일본어 실력은 점점 늘어갔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모두 그 친구들이 도와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제가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일본어에 흥미가 있는 친구들에게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제가 공부하던 책으로 일본어를 알려주거나, 한국에서 인기 있는 일본 모델이나 인터넷 가수의 유튜브 영상에 한국어 자막을 넣고, 한국인 팬이 일본 가수에게 쓴 편지를 일본어로 번역하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일본 문화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言ってよ, pick me up!

皆さんは「プロデュース48」というプログラムをご存じですか? 国民が直接アイドルデビューメンバーを選抜する韓国と日本のシステムが結合されたコラボの番組です。日本のアイドルは最初、まだ韓国のシステムや言葉、文化などに慣れていなかったのでもっと苦労しましたが、韓国の練習生との合宿や練習を通してお互いの言葉や文化を学びながら友達になり、国民プロデューサーの選挙によりIZ*ONEとしてデビューしました。

私はその番組を見て、最初は言葉も通じなかった韓国の練習生と日本のアイドルがお互いの言葉を学んだり、教えたり、お互いの為泣いたり笑ったりしながら友情が芽生える姿を見て、自分の経験と重なるところが多く、とても感動しました。

なぜなら私が日本語に興味を持ち始めた時、ネットでできた日本の友達はこの番組と同じように、間違えた漢字を直してくれたり、難しい発音を何回も言い直してくれたり、夜遅くまで通話をしてくれたり、本当に沢山手伝ってくれたからです。そのお陰で私の日本語はどんどん上達していきました。今、私がこの場に立っているのはその子たちの助けがあったからこそです。

今度は私の方から誰かの助けになりたいという思いから、日本語に興味がある学校の子たちに昼休みの時間を活用して一週間に二回ほど自分が勉強していた本を使って日本語を教えています。また韓国で人気の日本のモデルやネット歌手のユーチューブの動画に韓国語の字幕を入れたり、日本の歌手に韓国人のファンが書いたファンレターを日本語に訳すお手伝いをしたりしています。これからも日本語の勉強を一生懸命頑張り、日本文化への理解を深めるため努力していこうと思っています。

다카마쓰(高松)의 호빵맨 도시락



정지희 일본문화원 리포터(4기)



에키벤이란 에키우리벤토(販売り弁当, 역에서 판매하는 도시락)의 줄임말로 기차역에서 파는 도시락이다. 철도문화가 발달한 일본에서는 이동 중에 먹을 수 있는 에키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명사로 유명해진 이유는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도시락 외에 그 지역만의 특색이 담긴 에키벤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에키벤은 그 종류가 수백 종에 이르며 소위 ‘열차 덕후’와 ‘에키벤 덕후’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시코쿠 가가와현(四国 香川県) 다카마쓰역(高松駅)의 명물인 호빵맨 도시락을 소개한다.

시코쿠 여행 중, 가가와현과 에히메현(愛媛県)을 잇는 열차에 오르기 전에 에키벤 가게에 들렀다. 시코쿠는 모두에게 친숙한 애니메이션 ‘날아라 호빵맨(アンパンマン)’의 작가 야나세 다카시(柳瀬 嵩)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시코쿠를 여행하다 보면 동네 마트 진열대와 역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상품뿐만 아니라 호빵맨 열차, 호빵맨 도시락, 역에서도 호빵맨 캐릭터 스탬프를 찍을 수 있다.

역에서 살 수 있는 호빵맨 도시락은 두 종류가 있는데, 첫날 방문했을 때는 작은 어린이용 도시락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이름은 ‘호빵맨 도시락(アンパンマン弁当)’. 도시락 포장지부터 캐릭터가 그려져 있어 추억을 불러일으켰다. 마쓰야마(松山)로 향하는 이시즈치 열차(いしづち列車)에 탑승하면 어느 열차처럼 간이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어 이동 중에도 간단한 식사가 가능하다. 어린이용 도시락이기 때문에, 어른 손바닥보다 조금 크지만 내용물은 꽤 알차다. 캐릭터 얼굴로

꾸며진 밥과 소시지, 계란말이, 튀김, 그리고 디저트로 먹을 수 있는 젤리까지 들어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열차 이동 중 소중한 한 끼가 되어준 에키벤! 캐릭터 도시락의 귀여움과 허기를 달래주는 든든함이 여행의 시작부터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었다.

에히메에서 가가와로 돌아오는 길에는 또 다른 호빵맨 도시락이 있어서 구매했다. ‘겐끼 100배 호빵맨 도시락(げんき100ばいアンパンマン弁当)’이라는 이름의 도시락이다. 이전에 산 호빵맨 도시락과 구성이 비슷하지만, 반찬의 구성이 좀 더 다양하고, 캐릭터의 코나 홍조가 햄과 당근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다. 일본 여행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도시락을 구매해보는 건 어떨까. 그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도시락도 좋고, 유명한 작품이나 캐릭터를 이용한 도시락 등 여행의 추억을 더 할 수 있는 일본의 재미있는 문화가 아닐까 싶다.

2019년도 JET프로그램 모집요강

JET프로그램(The Japan Exchange and Teaching Programme : 어학 지도 등을 행하는 외국 청년 유치사업)의 약칭으로 일본의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업무 및 학교에서의 외국 어 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JET프로그램은 일본 정부(총무성, 외무성, 문부과학성 및 자치체국제화협 회)의 협력하에 지방공공단체 등이 실시하고 있다.

【모집 직종】

국제교류원(CIR : Coordinator for International Relations) 지방공공단체의 국제교류 담당 부서에 배치되어 국제교류 이벤트의 기획 및 운영, 한국어 및 한국문화 강좌의 개최, 내빈통역, 자치단체 홍보물 번역, 자매도시 교류협력 사업 등의 업무

외국어 지도 조수(ALT : Assistant Language Teacher) 주로 교육위원회 또는 초·중·고 등에 배치되어 소속장이나 교장의 지시를 받아 외국어 담당 지도 주사 또는 외국어 담당 교원 등의 조수로서 직무에 종사한다.

* 모집 요강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kr.emb-japan.go.jp/cult/JET.html>

【모집 기간】

방문 접수 10월 24일(수)~11월 13일(화) 10:00~12:00, 13:30~17:30, 휴관일 제외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JET프로그램 상담실

우편 접수 10월 24일(수)~11월 9일(금) 우체국 소인까지만 유효하며 등기에 한함.
겉면 봉투에 'JET프로그램 응모 서류'라고 명기, 우편 접수 시에는
반송용 우편 봉투(우체국 규격 봉투 사용, 반송 받을 주소 기입, 우표 부착) 동봉.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4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JET프로그램 담당자 앞
※ 접수 후 수험료 및 시험 안내문 배부, 외국어 지도 조수는 매년 모집이 없으니
응모 단계에서 국제교류원과 함께 지원할 것.

문의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JET프로그램 상담실 02-765-3011(내선 140), jet@so.mofa.go.jp



2018 대학생 COOL JAPAN 리포터 모집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는 일본 외무성이 실시하는 청소년교류사업인 'JENESYS 2018'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일본을 방문할 한국 대학생들을 모집한다.

단, 영남지역과 제주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에 위치한 학교 재학 자는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과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 별도로 청소년교류 사업을 담당하고 있어 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

서류응모 11월 12일(월)~11월 29일(목)

※등기우편으로 우송. 접수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접수방법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https://www.kr.emb-japan.go.jp/itprtop_ko/index.html)에서
응모 양식을 다운 받아, 필요사항을 기재한 후 우편 접수

접 수 처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4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청소년교류 담당자 앞

1차 합격자 발표 12월 4일(화) 일본문화원 페이스북 게재, (<http://www.facebook.com/j.munwhawon>)

면접 12월 10일(월), 11일(화) 14:00~18:00(한 그룹당 4~5명, 약 20분씩 실시 예정. 장소는 추후 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12월 14일(금) 개별 통보





제7회 대학생일본어연극대회

대학생일본어연극대회는 전국(영남지역은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이 주최하는 일본어연극제에 신청)의 일본 관련 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평소 습득한 일본어 학습의 성과를 발표하고, 각 대학 일본 관련 학과 학생 간 상호 교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2012년 호평 속에 처음으로 개최되어 올해로 제7 회째를 맞이한다. 엄정한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된 5팀이 11월 17일(토) 열리는 본선 무대에 선다. 그 랑프리, 최우수상, 우수상, 특상, 일한교류상, 최우수 연기상 수상팀 및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외 무성이 실시하는 일본 방문 프로그램(JENESYS2018) 참가자격이 주어지며, 그랑프리과 최우수상 수 상팀에게는 (사)한일미래포럼이 제공하는 소정의 상금이 우수상, 특상, 일한교류상 수상팀에게는 시 사일본어학원 수강 상품권이 수여된다. 선착순 무료관람.

일시 11월 17일(토) 14:00~18:00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뉴센추리홀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사)한일미래포럼,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협찬 및 후원 한국일본학회, 수림문화재단, 한국미쓰비시상사주식회사, 한국미쓰이물산주식회사,

한국스미토모상사주식회사, 한국마루베니주식회사, 시사일본어학원

문의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02-765-3011(125, 123, 120) <http://www.kr.emb-japan.go.jp>



SJC매듭클럽전시회

서울재팬클럽(SJC) 매듭클럽 회원들이 제작한 매듭 작품 전시회가 11월 14일(수)부터 16일(금)까지 주 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실크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주로 한국에 주재하는 일본인 여성으로 구성된 SJC매듭클럽은 2008년부터 매듭강습회를 열어 한국인 안명수 선생님에게 매듭을 배우고 있다. 또 일한 문화 교류 및 친선을 도모하고 회원들에게 작품 발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년에 한 번씩 공 보문화원에서 작품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작품전은 제6회째이며 노리개와 액세서리, 벽걸이 등의 매듭 작품을 전시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람 바란다. 무료입장.

일시 11월 14일(수)~16일(금) 10:00~17:30(16일 15:00까지)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2층 실크갤러리

주최 SJC매듭클럽

후원 주한일본대사관

문의 maedeup2018@gmail.com



2018년 일본 전통무용 워크숍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는 국제문화교류의 일환으로 일본 전통무용을 한국에 소개하는 일 본 전통무용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일본의 전통무용가 3인(니시카와 미노스케, 아바무 라 도모고로, 하나야기 기에아야카)이 방한하여, 일본무용의 역사적 배경을 시작으로 에도시대 가부 키에서 발전한 '오도리'와 긴키지방의 연회에서 발전한 '마이'의 움직임과 특징 등을 설명하면서 실 제 작품을 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무료관람.

일시 12월 1일(토) 15:00~16:30(한국예술종합학교 크누아홀)

12월 2일(일) 15:00~16:30(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주최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세계민족무용연구소(서울), 국립부산국악원(부산)

후원 주한일본대사관(서울),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부산)

문의 세계민족무용연구소 02-746-9347(서울공연)

국립부산국악원 051-811-0046(부산공연)



가장고도면 이순나라 앞초, 야행만으로는 알기 힘든
일본 속으로 들어가 겪은 심정지등 좌충우돌 유학 야행기

오~키니!! 최현정의 유학(遊學)보고서

일본의 동북 지방은 남북으로 길게 뻗은 오우산맥(奥羽山脈)을 중심으로 6개 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려한 자연과 온화한 기후지만, 지형 특성상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고 냉해나 쓰나미의 피해를 자주 입기도 한다.

2011년에 일어났던 동일본대지진과 쓰나미를 보면서 자연재해 앞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느낄 수 있었지~

평균 37년에 한번 꼴로 쓰나미가 일어난다니... 그런 자연과의 공생이라... 이후 그곳은 어떻게 되었을까?

“共生”



모두가 궁금해 하는 중에 전해 들은 희소식! 지난 10월, 제주올레의 자매인 규슈올레에 이어 미야기현에도 두 개의 올레길 코스가 개장했다. 올레는 제주어로 '큰 길에서 집으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길'을 뜻하는데, 그 의미처럼 누군가의 삶의 터전을 걸으며 자연을 만끽하는 여행이다.

벌떡

제주올레

1. 규슈올레

2. 몽골올레

3. 미야기올레

게센누마 가라쿠와 코스
오쿠마쓰시마 코스

레츠고~

그 개막의 첫발을 내딛는 영광을~ 좋아! 가는거야~



미야기올레 개막식 참여를 준비하면서 들은 25호 태풍 공레이의 북상 소식은 우리를 긴장하게 했다. 하지만 태풍 걱정이 무색하게도 비행기는 어느새 구름 위를 날고 있었으니 난 역시 하레온나(晴れ女).

두 시간을 날아 해가 뉘엿뉘엿 캄캄해질 무렵 센다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공항에서부터 지역민들의 열렬한 환대를 받았다.



태풍의 영향권 안은 캄캄하지만 그 영향권 밖은 눈부시게 밝은 세상이라구나! 첫 시작이 좋아!

기대기대~



*하레온나 - 가는 곳마다 청명한 날씨를 물고 다니는 여자.

날이 밝아 드디어 대망의 올레길 개막식이 열렸다. 미야기올레의 모체가 되는 제주올레 서명숙 이사장님과 미야기현 관계자분들이 참석해 개막을 알렸다.

리본 커팅식 대신 재사용이 가능한 리본 풀기식으로 거행되는 올레길 개막식, 역시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에코올레로구나!

미야기올레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규슈올레 3총사 미스터 규슈올레 씨와 규슈올레 유명인 핑클 언니들. 알고 있는가? 신기하게도 올레에서 만나면 나이, 성별, 지역, 직업, 국경과 상관없이 모두가 친구가 된다는 사실~!



일본과 한국 각지에서 국경을 초월해 참여한 올레길 초보자들과 올레길 달인이 올레꾼이 되어 함께 걷는 길.



올레 와펜, 간세 인형, 올레 완주자에게만 수여되는 특별 뱃지 등 올레 계급이 느껴지는 달인의 배낭엔 훈장이 반짝반짝~

올레꾼 특유의 패션이 있어~



올레 리본의 색상과 간세(말)를 이미지화 한 올레 전용의상까지 제작할 정도로 뜨거운 일본인들의 올레 사랑.

어서 오아~